'94 제3차 이사회 개최

우리생약 살리기운동 전개 계획

제약사에 국산한약재 사용 촉구

◇지난달 9일 본 협회회의실에서는 25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94 제3차 이사회가 열렸다.

지난달 9일 2시, 협회 회의실에서 94년 제3차 이사회가 개최됐다.

25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사들은 규격화 대상 37개 품목중 17개 국산 생약재는 규격화 품목에서 제외되야 한다는 것과 품질규격화가 우선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관철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제약회사에서도 값싼 수입약재 대신 성분이 우수한 국산한약재를 사용함으로서 우리생약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보사부가 고시한 규격화 취지에는 뜻을 같이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값싼 수입한약재에 밀려 국내산 생약의 종자보전마저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국내산 한약재에 대한 규격화 실시는 시기상조이며, 우리 생약이 자생력을 키우는 동안만이라도 국산 생약 17개 품목에 대한 규격화 실시는 철회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승엽 지부장(전라북도)은 『보사부 규격화 대책안에 대해서 국립보건원 등 전문기관에 우리 생약의 「농약잔류검사」와 「이화학검사」를 의뢰해 우리도 우리나름 규격품(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고 이어 『수입산은 제약회사에서, 한의원, 한약방, 한약국 등에서는 국내산 생약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보자』고 피력.

한편 사무국은 이날 회의에서 올 상반기 협회 안정기금현황과 공판장 운영현황에 관해 보고하는 한편, 안정기금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문서화하여 보고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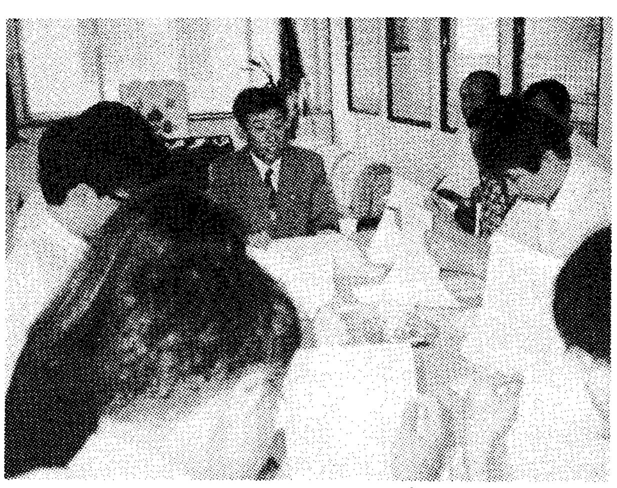
또 중앙공판장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됐는데,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판장에 전산화시스템을 갖추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종용 회장, 송경태 명예회장, 임연학 수석부회장, 정형모 부회장, 황인구 부회장, 박만종 고문, 남정룡 고문, 이옹용 이사, 김종근 이사, 이문섭 이사, 김용한 이사, 이지대 이사, 권순직 이사, 김성배 이사, 이영갑 이사, 박종연 이사, 장지홍 이사, 라한주 이사, 김재석 이사, 정연수 이사, 허영 감사, 이승엽 전북 지부장.

기자간담회 열여

지난달 4일 협회회의실서



◇기자간담회 장면.

이종용 회장은 지난 8월 4일 보사부 규격화고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격화고시 품목중 국산생약재 17개 품목은 규격화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연동제 품목의 제정 본래의 목적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대량으로 수입되는 값싼 외국약재에 밀려 국내산은 종자보전 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목단피의 경우 수입가격이 ㎏당 2천5백원에 불과한데, 국내산의 경우 생산자 원가가 8천5백원에 이르다보니 판매를 하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국내 생산 생약중 수급조절용 수입한약재를 일괄 수입하여 공매처분하되 그 차액금은 전액 생산자 보호차원으로 쓰여져야 하며, 생약 생산자들에게 원가를 절감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또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규격화가 되면 불편하게 경비만 더 들어가서 원가상승 요인이 되어 수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굳이 절단하여 포장할 필요가 없는 제약 원료용 생약을 규격화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생산자에게 돌아가므로서 생산의욕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 설

규격화,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

보사부가 고시한 한약재 규격화에 대하여 각 단체간 의견이 분분하다.

규격화는 꼭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느니, 어떤 단체는 시기가 촉박하고 업계 전체가 참여율이 낮으니 2년간 유보해 달라느니 하는 나름대로의 요구가 있는것 같다.

보사부는 지난 3월 25일 규격화 고시 발표를 하면서 95년 4월 1일 부터는 37종의 한약재 규격화는 꼭 시행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그동안 본 협회를 비롯한 여론의 집중 화살을 받고 세부사항에 대해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유통체계 확립과 국민보건 차원에서라는 보사부의 규격화 실시 취지는 십분 이해 한다. 또 언젠가는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좋은 처방이란 무조건 「좋은 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나만큼 환자의 상태와 체질에 맞게 조제되느냐에 있듯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껴 입을 수 없는 법이다.

그렇다면 보사부가 고시한 국내산 한약재 규격화는 우리 생약재배 농민들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한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으며, 과연 우리 몸에 맞는 옷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6만7천여 농가에서 년간 2천억원 어치 이상의 생약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로 환산하면 2억5천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이다.

우리 생약의 품질 우수성은 이미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상태이며, 본 협회에서 계약재배하고 있는 삼도시호의 경우 세계에서 으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처럼 우수한 품질의 우리 생약재가 70년대만 해도 수 천만 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나 지금은 그 숫자가 줄어 겨우 몇개 품목만을 수출하고 있을 뿐, 그나마 모자라서 내수용으로 수입을 하는 품목도 상당하다.

이대로 나간다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국산생약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전체 물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됨은 물론, 갈수록 수지가 안맞는 생약재배에서 하나 둘 손을 떼는 농민이 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생약재의 종자 보전 마저도 위태로울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이쯤되고 보면 국내산 17종에 대한 규격화 고시는 현실을 전혀 무시한 처사이며 규격화 본래 취지에서도 많이 어긋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 생약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품종으로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생약 재배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는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규격화는 국내 생약 재배 농민들의 현실을 고려, 실제 가공(법제)을 해야 유통 가능한 한약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하며,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의해 가공된 생약재는 「규격품」으로 인정되야 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규격화를 강행한다면 정부와 농민과의 사이에 골이 깊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약재 규격화 고시의 배경이 약사법을 기준한 국민보건차원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포장의 규격화」 이전에 「품질상의 규격화」가 선행되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

정부의 시책은 여러사람이 공감하면서 국익에 우선해야 한다.

보사당국은 말하지 않고 묵묵히 생산에 임하는 재배 농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규격화」가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옷」, 「좋은 처방」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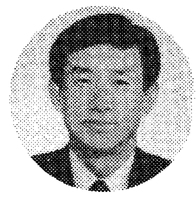
단신

농림수산분과 위원장 면담

○…본부 이종용 회장, 임연학 수석부회장, 전근택 사무국장은 지난 8월24일 국회를 방문하고 양창식의원(농림수산분과위원장)을 예방, 인사와 함께 협회 현황 보고 및 현안 문제인 보사부 규격화의 문제점 등을 설명.

본회 이종용회장 동남아 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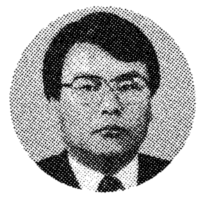
○…본회 이종용회장은 지난 8월28일 생약분야 수출 협의차 일본, 중국, 홍콩 등지로 출국.



◇이종용 회장

약용작물회의 참석

○…본회 생약연구위원 성낙술박사(농촌진흥원 작물시험장)는 8월 12일~21일까지 10일간 약용작물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하고 8월22일 귀국.



◇성낙술 박사

회장단 회의 개최

○…지난 8월25일 이종용회장은 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날 주요 토의 사항은 보사부에서 제시한 한약 관리규정(초안)의 문제점 및 수급 조절 품목에 대한 건을 집중적을 토의하고 우리생약살리기 운동 전개의 추진 등을 상의하였다.

생약연구위원회 지난24일개최해

지난 8월 24일 6시 본 협회 회의실에서 「생약연구위원회」가 개최됐다.

도상학 위원장(동덕여대 약학대 교수)을 비롯 안덕균 위원(경희대 한의대 교수), 박호균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은복 위원(한국자연보존협회), 성낙술 위원(수원농촌진흥원 작물시험장 약용작물과) 등 5명의 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생약의 품질향상 방안에 관해 주로 토의됐다.

내방

▲정형모 부회장 ▲유진걸 부회장 ▲이옥용 이사 ▲박재문 이사 ▲장지홍 이사 ▲박영임 지부장(강원) ▲김성배 지부장(경기) ▲이지대 지부장(충북) ▲박영기 전문위원 ▲최상환 사무소장(경주시) ▲이광우 사무소장(충주시) ▲이인기 사무소장(포천군) ▲서중석 공판장장(순천시) ▲우대기 공판장장(태백…